

2016
Summer

VOL.7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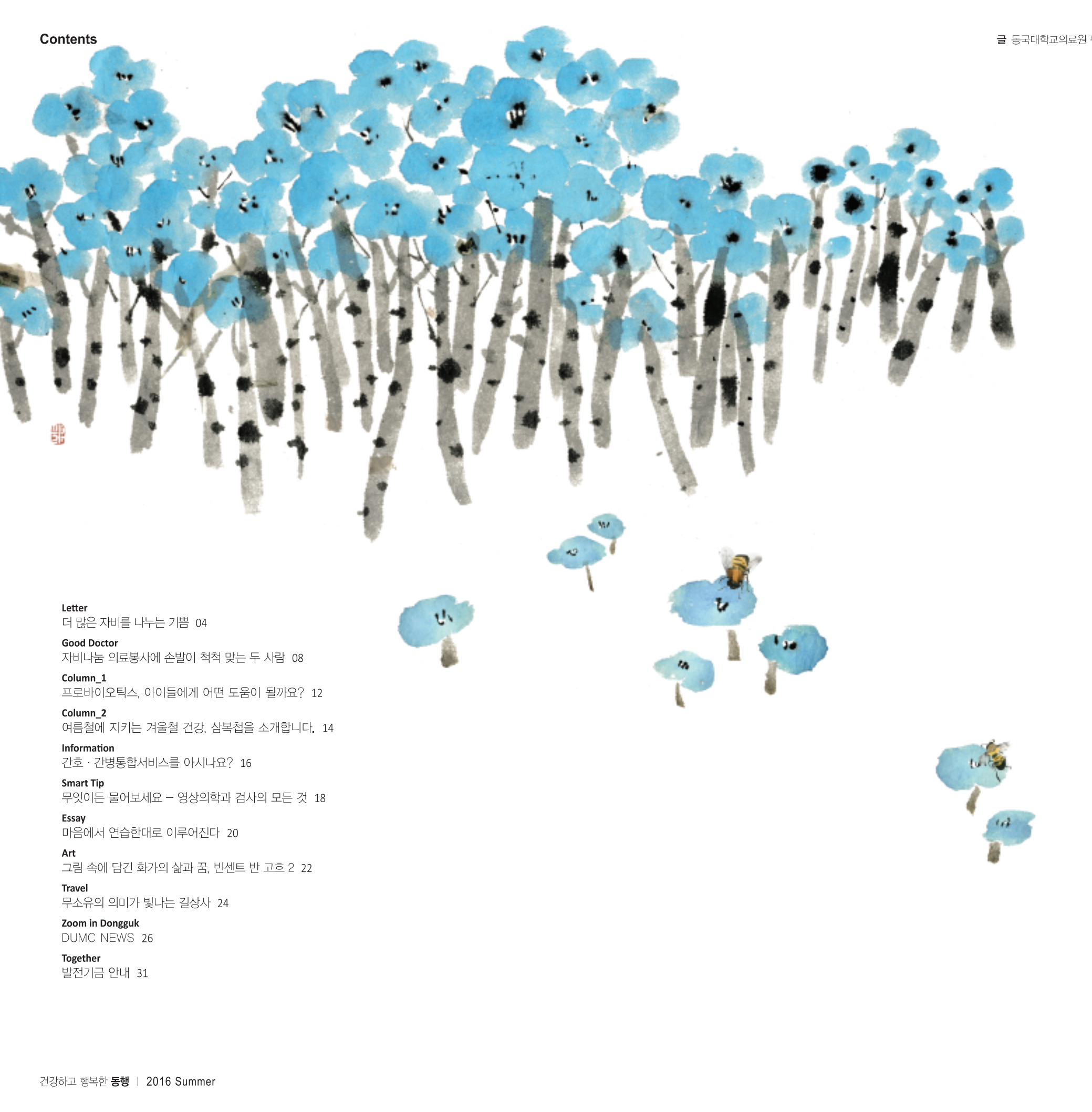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풍요로우니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써 풍요로우신다
햇살이 널리 퍼질수록
세상이 따사롭게 지킵니다





Letter
더 많은 자비를 나누는 기쁨 04

Good Doctor
자비나눔 의료봉사에 손발이 척척 맞는 두 사람 08

Column_1
프로바이오틱스,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12

Column_2
여름철에 지키는 겨울철 건강, 삼복첩을 소개합니다. 14

Information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아시나요? 16

Smart Tip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영상의학과 검사의 모든 것 18

Essay
마음에서 연습한대로 이루어진다 20

Art
그림 속에 담긴 화가의 삶과 꿈, 빈센트 반 고흐 2 22

Travel
무소유의 의미가 빛나는 길상사 24

Zoom in Dongguk
DUMC NEWS 26

Together
발전기금 안내 31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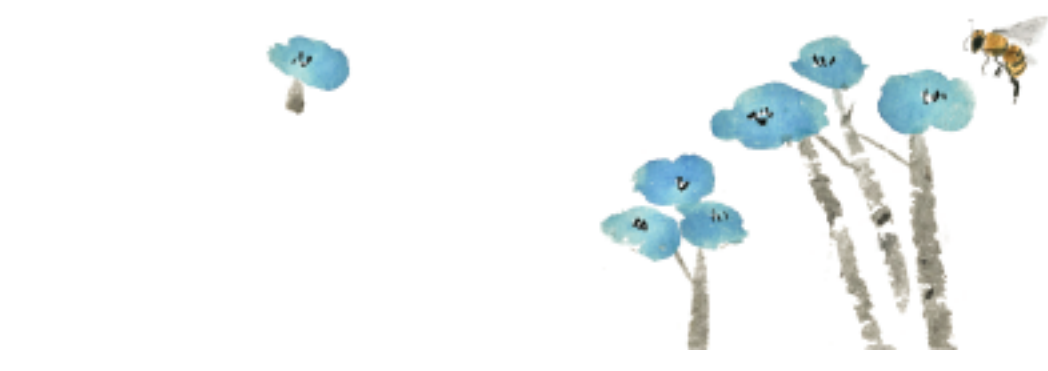
‘손이란 참 좋은 것이다. 주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받는 사람에게 큰 위안을 주니 말이다.’

프랑스 소설가 안나 가발다의 『함께 있을 수 있다면』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한 복지재단 후원 참여에 대한 감사의 글로 받아들곤 손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후원 신청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재빠르게 셈을 했거든요. 지인을 통한 후원인지라 얼마를 해야 ‘모양’이 빠지지 않을까, 한 달에 얼마를 하는 게 내 생활규모에 적합할까… 걸으론 ‘흔쾌히’ 수락을 해놓곤 그 짧은 순간에 뭐 그리 대단한 셈이라고 머리를 썼는지 민망하고 부끄러울 따름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지 않는’ 나눔임에도 넘치는 책임인양 엄살을 떨었습니다.

그릇이 탐난 적이 있습니다. 그릇을 쌓아둬야 할 만큼 식구가 많은 것도, 손님 방문이 잦은 것도 아닌데 욕심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욕심과 적당히 타협해 구입한 커피잔과 머그잔은 지금 찬장 한구석에서 고이 잠자고 있습니다.

물건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물건, 여유있는 물건, 불필요한 물건이 그것입니다. 지금 필요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옛것에 대한 미련과 앞으로의 소용에 대한 걱정으로 여유있고 불필요한 물건을 늘리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면서 풍요로워지면 나누겠노라 입버릇 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풍요로워질수록 더 풍요로워지길 강요받으며 빈곤을 느낍니다. 그나마 강요하는 힘이 내 밖이 아닌 내 안에 있어 다행입니다. 스스로 탐욕의 골방에서 나올 기회는 있으니까요.

물건으로 가득찬 눈엔 이웃의 헐벗음을 담고, 물건을 잔뜩 껴안은 마음엔 이웃의 필요를 위해 자리를 내주고… 그것이 내 필요를 똑 잘라 내놓아야 할만큼 크지도 무겁지도 않아 또 다행입니다. 여유를 줄이고 불필요를 털어내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내게 지우는 책임이 너무 무겁지 않게, 받는 이의 부담도 많지 않게, 그러나 서로의 위안은 정작 오고간 것보다 훨씬 값지고 클 것입니다. 그게 나눔의 힘입니다.



더 많은 자비를 나누는 기쁨

“저도 친구들처럼 손가락 열 개 갖고 싶어요.”

미얀마 만달레이에 사는 어린 소년 고고(6세)는 남들이 다 갖고 있는 열 개의 손가락을 갖는 것이 소원입니다. 손가락이 붙은 채 태어난 고고는 괴물이라는 친구들의 놀림이 어느덧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남몰래 눈물 흘리는 날이 많습니다. 만달레이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스님은 고고의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을 접을 수 없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스님은 한국의 동국대학교병원이 의료나눔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태석기 의료원장은 스님의 연락을 받고 이것 또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해 개원 10주년을 맞아 사회공헌사업을 선포하고 대상자를 발굴하던 중이었습니다. 정형외과 이상형 교수를 주축으로 해외나눔의료팀이 구성되어 미얀마로 달려갔습니다. 손 분야 전문가 김진영 교수도 동참했지요.

해외나눔의료팀은 주말을 포함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한국의 환자들에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주말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해외나눔의료팀은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빠듯한 일정으로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시립병원과 주요사찰을 방문하여 긴급 의료지원과 함께 수술이 필요한 수혜자를 선별하기 위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열 손가락을 갖는 게 소원인 고고를 만난 것은 물론이구요.

이상형 교수와 김진영 교수는 가능하다면 현지 병원을 섭외해서 수술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사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미얀마 만달레이는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현지에서 고난도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환우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형 교수팀은 현지에서 발굴한 세 명의 대상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5월 중에 수술치료를 진행하려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법과 절차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저개발국가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의 비자문제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생각만큼 빨리 진행되지는 않아 나눔의료팀은 애가 탑니다. 손가락이 붙은 고고, 흔히들 언청이라 부르는 구순구개열로 우유조차 먹기 힘든 아기, 갑상선 질환으로 목이 부어오르고 눈이 튀어나온 여성, 이렇게 세 명의 미얀마 환우들은 한국에 와서 치료받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해외의료나눔팀은 다방면으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만간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희망을 찾겠지요.



승가원 장애인, 수술로 혼자 생활이 가능해지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나눔의료사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료진은 지금까지 100여 차례의 의료봉사를 하면서 많은 사연의 환우들을 접해왔습니다. 그중에서 후원자들이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면서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거쳐서 의료봉사활동 중 알게 된 장애시설의 입소자들을 첫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바로 승가원자비복지타운의 장애우들이었죠. 이천에 소재한 승가원자비복지타운은 종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이곳에는 지체장애를 갖고 있어 손과 발에 변형이 생겨 일상생활에서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하는 장애우들이 살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의료나눔의 취지와 딱 맞는 환우들이었지요. 대상자 5인이 선정된 후 치료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1월 13일 수술이 필요한 다섯 명의 원생들을 병원으로 초청하여 수술에 필요한 진료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안타깝게도 두 명은 이미 수술시기를 놓쳐서 수술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한명도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결국 두 명의 환우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명은 지체장애로 발이 변형되어 무지외반증이 심한 상태라서 걸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겨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 한명은 뇌병변으로 손목이 안으로 굽은 채 굳어서 움직일 수 없어 불편과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이상형 교수가 족부기형 수술을, 김진영 교수가 손목 수술을 맡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앞으로 재활치료를 잘 받으면 혼자 생활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스리랑카 꼬마 시드미라, 한국에서 희망을 찾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나눔의료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불교신문에서 이주민돕기 캠페인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무료 진료를 제공하기에 이른 것이죠.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스리랑카의 네 살짜리 어린이 시드미라의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시드미라는 엄마 아니샤 씨의 뱃속에 있을 때 임신중독증으로 심장이 잠시 멈췄었습니다. 긴급 제왕절개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세상에 나온 지 1년이 넘도록 앉지도, 걷지도 못했습니다. 시드미라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엄마가 병원을 찾고 나서야 뇌성마비임을 알게 되었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적장애에서부터 시·청각

장애까지 합병증이 동반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말에 시드미라의 엄마와 아빠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의학이 발달했으니 그곳에 가면 시드미라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아빠 수미스 씨는 치료비 마련을 위해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료진은 시드미라의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각도로 살펴본 의료진은 수술이나 재활치료를 통해 일부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치료를 해도 걷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3월 27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입원한 시드미라는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시드미라에게는 각종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를 해주고, 앉은자세보조기와 발목보조기를 지원해주었습니다. 뇌성마비가 심각한 상태라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시드미라와 엄마, 아빠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되었지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해부터 ‘건강한 사회만들기’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후원금’과 수행에 전념하느라 건강을 챙기지 못한 스님을 위한 ‘승가의료후원금’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 후원금을 활용해 국내외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되돌려 드리는 작은 마음입니다.



『천수천안경 千手千眼經』에 의하면 천수관음보살은 ‘과거세에서 미래세의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는 대비심다라니(大悲心陀羅尼)를 듣고 환회하며,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몸에 천수천안이 생겨나게 하라.’고 원하여 천수천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원에 의하여 천수관음은 천 개의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응시하고 천 개의 자비로운 손으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지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의 손길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도움의 손길을 함께 할 자비로운 손을 기다립니다.

자비나눔 의료봉사에 손 발이 척척 맞는 두 사람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김진영 교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이상형 교수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해 개원 10주년을 맞아 ‘비전 2020’을 발표하며 사회공헌사업을 선포한 바 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 의료혜택을 주고 저개발 국가의 환자들을 치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손이 되어 아픈 사람들을 보살피겠다는 의지다. 태석기 의료원장은 이를 위해 발로 뛰며 모금을 이끌어냈고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지난 2월 17일에는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입소생 2명의 수술을 집도하고,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미얀마 만달레이에 있는 시립병원과 주요 사찰을 방문해 긴급의료지원을 하고 수술이 필요한 수혜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형외과 이상형 교수와 김진영 교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냈다. 섬세한 수술 솜씨는 기본이고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까지 살피는 따뜻한 두 남자, 이상형 · 김진영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의학으로 실천

이상형 동국대학교병원은 스님들이 도와주셔서 생긴 종단병원이에요. 부처님이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아는 기술과 지식을 나누는 자비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이 시작되었어요. 태석기 의료원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세요. 저희는 그저 따를 뿐이에요. 승가원과 미얀마에 대상자 찾으러 갔을 때 김진영 교수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어요.

김진영 우리는 자비나눔을 한다고 갔지만 지난 1월에 이천 승가원에 입소중인 분들을 만났을 때도 미얀마 환자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를 환대해주는 모습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이상형 승가원 환자들 중에 수술 시기를 놓친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웠어요. 두 분이라도 수술을 해드리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저는 족부기형에 무지외반증으로 발변형이 심한 환자의 발을 펴드렸는데 점차 염증이 없어질테니까 생활이 좀 달라지시겠죠.

김진영 제가 맡은 환자는 뇌병변으로 손목이 굳어버린 상태였는데 손목을 펴드렸으니 이제 재활치료만 잘 받으면 그분도 손을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합지증 소년과의 만남을 계기로 국제적 의료나눔 확대

이상형 미얀마는 국제 선교하는 스님께서 합지증 환자를 의뢰하셔서 가게 되었는데 이번일이 국제적 의료나눔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30명의 환자들을 보고 수술 대상자로 손가락이 붙은 소년, 구순구개열 아기, 갑상선 질환 여성, 이렇게 세분을 찾아내기는 했는데 한국으로 모셔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김진영 학교 다닐 때 교수님 따라서 의료봉사 다닐 때는 그냥 가서 봉사만 하면 되었는데 막상 우리가 봉사단을 이끄는 위치가 되어보니 절차, 법률, 현지 상황 등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김진영 우리병원 정형외과 팀은 모든 스텝이 해당분야에서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동료의사가 추천하는 의사’가 의사로서는 극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과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수술을 하느냐 보다는 잘 하느냐, 남들이 못하는 것도 케어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이상형 환자와 보호자에게 잘 설명해주는 감성적 서비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술을 ‘아트’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환자가 좋아지는 것에 기술은 일부일 뿐입니다. 수술이 잘 안 돼도 정성을 쏟은 환자에게서 더 좋은 경과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환자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증거죠. 우리 병원 정형외과 의사들은 정성, 인성이 훌륭하다고 자부

합니다. 환자들의 감정을 다독여주고 완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치료에 임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사로서의 권위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의도대로 환자가 따르게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만큼 확실한 실력을 갖춰야 권위가 따르는 것이겠죠.

꼬마숙녀의 진심어린 포옹이 긴 여운으로 남아

김진영 얼마전 손가락 골절로 내원한 일곱 살 꼬마 여자가있었어요. 뼈를 맞춰야 해서 사탕을 주며 달랬더니 사탕에 관심이 쏠려 고통을 모르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다행히 수술 안하고도 뼈가 잘 붙었어요. 완치되어서 손가락 움직이는 것을 보더니 아이가 “우리 선생님 안아줘야지”하면서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감동이었죠. 하루에 60~70명의 외래환자를 보는데 그 한 번의 허그가 하루종일 여운으로 남아있었어요. 정말 기분 좋은 느낌이었죠.

이상형 아이들을 수술해보면 퇴원할 때는 어른이 되어 나갑니다. 주변인들을 다 챙기고 많이 자라죠. 아이들은 아프면 많이 크는 것 같아요. 동국대학교병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뇌출혈로 사지가 마비된 40대 환자를 접했어요.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환자였고 3년을 누워 지내면서 발이 휘어져서 바로 설 수 없는 상태였어요. 재활의학과에서 발을 펴서 세워달라고 요구한 환자였는데 환자의 보호자도 적극적으로 원했어요. 이 상태에서 발을 펴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며 4개월에 걸쳐 수술과 교정기로 발을 뻗어요. 바로 서게 되니까 뇌에 자극이 되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던 환자가 눈빛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죠. 그것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환자가 어떤 상태일지라도 포기하지 말자, 환자들은 수술이 그 이상의 것을 얻어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상형 김 교수님은 전공분야 일을 하기도 바쁠 텐데 의료봉사 있을 때마다 같이 가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김진영 나에게도 좋은 경험이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이니깐요. 힘닿는 한 열심히 같이 해봅시다.



정형외과 김진영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병원 전공의
서울대학병원 전임의(수부 및 상지)
Medical college of Wisconsin International faculty

전문진료분야

수부 질환, 수근관증후군, 수부 골절, 수부 종양, 미세접합수술



정형외과 이상형 교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인하대학교부속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인하대학교 대학원 의과대학 석사 및 박사
분당서울대병원 임상강사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족부센터 임상강사

전문진료분야

족부 및 소아정형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 노하우

프로바이오틱스,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많은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판매량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외래 진료 중에 어머니들이 흔히 하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유산균을 어릴 때 부터 먹으면 몸에 좋은가요?’ 입니다. 그 만큼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복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먹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언론에서 광고하는 것을 보면 효능이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는 면도 있고 실제로 잘 못 알려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란 ‘for life’라는 뜻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친생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원 상 항생제(antibiotics)와는 대조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실제 세계 건강기구 WHO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란 충분한 양을 섭취하였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균’ 요즘 출시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을 보면 단일 균 제제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유산균 들을 함유한 복합제제 까지 여러 형태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약물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과거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우리의 고유 음식인 김치, 된장, 청국장 등과 같은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우리의 장 건강을 지켜 왔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자연분만을 통해 엄마의 산도에 살고 있던 유익균을 물려받거나 모유를 먹으면서 장 속에 자연스럽게 생긴 것인데,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성장하면서 그 양이 점차 줄게 됩니다.

이와 반비례해 우리 장 속에 증가하는 것이 유해균으로서 장 속에 독성물질을 일으키고 장

점막을 얇게 만들고 얇아진 장 점막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간 독성물질은 만성염증을 일으키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식품으로 섭취되기도 하지만 실제 병원 임상 치료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장점 및 효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프로바이오틱스의 설사에서 치료 효과

소아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설사에 있어 probiotics의 효과는 다른 분야보다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Lactobacillus GG(줄여서 L, GG)는 소아의 급성 설사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고 항생제 사용으로 유발된 설사(C. difficile associated diarrhea)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음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항생제의 사용은 장내 세균총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대장에서 탄수화물흡수와 단쇄지방산의 흡수를 저하시켜 삼투성 설사를 유발합니다. 소아의 경우 L, GG, 성인의 경우 Sacchromyces boulardii와 L, GG가 예방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러나 세균성 설사의 경우 프로바이오틱스 단독 요법의 효과는 미미하며, 미숙아의 경우 과사성 장염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상 분만으로 출생한 아기와 제왕절개수술로 태어난 아기의 장내 세균 균총이 차이가 있고 모유 수유아기와 분유 수유아기의 장내 세균 균총 역시 다르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거의 돌 무렵쯤 되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돌 이후에는 식이에 따른 장내 세균총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으며, 굳이 신생아 때부터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2. 알레르기 예방 및 면역기능 향상 효과

아토피 및 알레르기 질환 예방에 있어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많이 발표되었으며, 실제로 임상에서 증상개선에 도움이 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알레르기 질환에서 probiotics의 장점은 장에서 비 면역학적 장벽을 형성하여 장 투과성을 정상화하고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Lactobacillus rhamnosus와 Lactobacillus reuteri 유산균을 복용시킨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또한 유산균 복용 후에 장 점막 투과성이 호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아토피 환자의 장 투과성을 낮게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먹어도 별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즉 ‘경구 관용’(oral tolerance)이 이루어짐으로써 증상이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L, GG를 소아에게 투여했을 경우에 백신에 대한 항체역가가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면역기능의 활성화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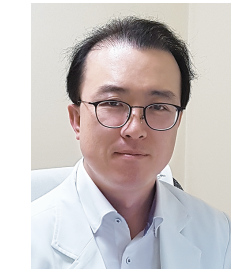
3. 과민성 대장 증후군 및 변비증상 개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변비증상의 개선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일부 있으나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소아의 경우는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경우 프로바이오틱스가 치료제로 일부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변비증상이 있는 경우에 부모님들이 유산균제제를 아이들에게 많이 먹이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소아 변비치료에 있어서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는 미미하여, 만성변비의 경우 프로바이오틱스 보다는 변비치료제를 꾸준히 사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도 염증성 장 질환이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간성 뇌증 등에서도 효능이 어느 정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프로바이오틱스 제제가 출시되었지만 그 중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약제는 비오플산(Bioflor)와 람노스(Ramnos), 비스칸엔산(Biscan-N)이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 모두 단일 균주로 구성된 약제로 균주도 각각 다르고 효능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역적 결핍이 없는 비교적 건강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큰 문제없이 사용가능하지만 면역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오히려 폐렴증이나 요로감염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현재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으므로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소아청소년과
조 승 만 교수

전문진료분야
소아 소화기 및 영양, 신생아학

진료시간
오전 » 화, 수, 목
오후 » 월, 목, 금

문의
소아청소년과 외래 054 · 770 · 8251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 노하우

여름철에 지키는
겨울철 건강!
삼복첩(三伏貼)을
소개합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소아청소년과

민 상 연 교수

전문진료분야
왜소증, 성장장애, 성조숙증, 소아천식,
소아복통 및 식욕부진, 소아알레르기,
소아두통, 안면마비

진료시간
오전 » 월, 수, 금, 토
오후 » 월, 화, 수, 금

문의
한방소아청소년과 외래 031·961·9070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겐 병이 생겼을 때 치료받는 것 보다 병을 예방할 수 없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가 아프면 아이가 힘든 것도 당연하지만 그 상황을 지켜봐야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욱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봄,가을이 되면 우리아이가 건강하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방소아청소년과를 찾아 우리아이에게 좋은 보약을 찾아 방문하는 부모님들이 늘곤 합니다. 매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유행하는 병에 따라 예방주사를 맞듯 한의학에서 호흡기가 약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전해져 왔는데 이것이 삼복첩입니다.

여름에 감기나 기침 등의 호흡기 질환이 드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의학에선 여름엔 양기가 강하고 기의 흐름이 활발해 양기부족이 원인이 되는 감기나 기침 등의 질환 잘 걸리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환들은 잠시 잠복해 있는 상태로 있다가 겨울이 되어 양기가 부족해지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여름에 자연과 인체에 넘치는 양기를 잘 모으고 양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면 겨울을 감기나 기침 같은 호흡기 질병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동병하치(冬病夏治: 겨울철 병을 여름철에 치료함)의 원리입니다.

삼복첩의 원리

한의학의 최고의 고전인 《內經 四氣調神大論》에는 ‘聖人春夏養陽, 秋冬養陰, 以從其根’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인(聖人)이 말하기를 봄여름에는 인체의 양기(陽氣)를 기르고, 가을겨울에는 인체의 음기(陰氣)를 길러야 건강해 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감기, 기침, 천식, 기관지염, 관절염, 토사곽란 등의 질환이 추운 계절에 쉽게 발병하거나, 그 병의



증상이 심해지는 질병을 여름철에 기온이 높고 인체에 양기가 충만한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인체 음양의 균형을 조절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름 중 삼복(초복, 중복, 말복)의 기간은 일년 중 자연계의 양기가 왕성하여, 인체의 양기 또한 최고조에 달하게 되므로 이때 약물을 통해 양기를 몸에 쌓이게 하여 폐(肺), 비(脾), 신(腎)등의 면역기능에 관련된 장부(臟腑: 오장육부)들의 기능을 복돋아주면 사계절 내내 질병의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동병하치의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삼복첩(三伏貼)’입니다.

삼복첩은 중국 명나라때 시작된 한방요법으로, 일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한 삼복(초복, 중복, 말복 총3회)를 즈음하여 오장육부의 기운을 강화하는 경혈자리에 치료효과가 있는 한약재를 붙이는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 및 대만 등에서 동병하치의 대표적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방법으로 수천, 수만의 환자들이 삼복시기를 즈음하여 한방병원을 찾아 시술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서 치료효과에 대하여 매년 수십 여건의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삼복첩은 시기만 잘 지키면 치료받기도 용이하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하고 특히 시술이 편해서 아이들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에 비염, 축농증, 천식, 감기, 만성적인 기침이 자주 발생하거나, 면역기능 떨어져 냉방병, 토사곽란 같은 질환이 잘 생기는 아이라면 특히 효과적입니다.

삼복첩의 방법

시술방법은 환약형태의 한약제를 환자의 등에 있는 6개의 주요 경혈자리에 붙이는 것으로 보통의 경우 어린이는 4시간, 성인은 6시간 정도 붙이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별다른 부작용은 없으나 환자의 민감도에 따라 간혹, 치료부위나 고정하기 위한 반창고가 붉게 되거나 가렵거나 아주 드물게 수포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치료의 반응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받으면 됩니다.

여름철 개미는 부지런히 창고에 곡식을 채워 겨울을 준비합니다. 여름의 노력으로 길고 긴 겨울을 걱정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이죠. 올 여름 개미의 교훈처럼 자신의 건강이나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미리 조금만 준비하신다면 겨울철에 잘 생기는 여러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입원 서비스,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를 아시나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전문 간호인력이 보호자와 간병인을 대신하여 24시간 입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를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6층 입원실 2개 병동, 총 100병상으로 시작한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이 사라지는 서비스입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환자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입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입원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24시간 질 높은 입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보호자나 고용간병인 없이 적정수의 간호 인력이 환자를 나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합니다.

병실 가까이에 간호사실이 위치하고 있어 필요 시 신속하게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며 환자의 안전관리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예방활동을 실시함으로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면회시간에 별도의 공간인 면회실에서 면회가 가능하여 환자의 안정과 감염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간병비 부담은 줄어듭니다.

입원 치료를 하고 싶어도 간병비 부담으로 망설였던 적이 있었다면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가 시간적 · 경제적 부담 해소하여 생활의 안정을 드릴 것입니다.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는 사적으로 간병을 하다보면 생기는 부담을 완화 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8세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대장암으로 수술 받고 7일간 입원을 했다면 7일간 개인간병비로 56만 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80%를 절약한 약 11만 원을 지급하면 되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환자는 쾌유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에서 제공함으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회 시간과 장소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 병실이 조용하고 쾌적합니다. 이는 환자 중심의 치료시스템으로 환자의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혹시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가 불편 하시거나 환자 1인만을 위한 간병을 원하신다면 일반병동으로 옮겨 치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는 자가간호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활동능력 범위 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최대한 빠른 시일에 건강을 되찾게 합니다. 따라서, 환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교육 후 스스로 식사, 세면, 산책 등을 하셔야 합니다. 간호 · 간병 통합 서비스가 잔심부름(물 떠와라, 라면 물 부어라 등)까지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 ① 모든 보호자와 방문객은 병실 내에 상주할 수 없습니다. 단, 보호자 상주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상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병문안은 환자와 나의 건강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을 준수합니다.
평일 18:00~20:00,
주말공휴일 10:00~12:00, 18:00~20:00
- ③ 면회는 지정된 병동 면회실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영상의학과 검사의 모든 것



Q MRI와 CT검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는 자장이 형성되어 있는 직경 60 ~ 70cm의 커다란 통 형태의 자석 장치에서 고주파를 발생시켜 인체에 보낸 후, 인체 내의 수소원자핵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컴퓨터로 처리하여 인체를 단면 및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질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CT(Computed Tomography)는 X-ray 발생장치가 360도 회전하면서 촬영이 이루어지며, 인체의 단면 및 3차원 입체영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질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두 검사법 모두 인체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장점은 동일하지만 흉부와 복부의 검사에서는 CT가 조금 더 많이 이용되고 뇌신경계, 척추나 골관절 질환, 근육과 인대를 진단하는 검사에서는 MRI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Q 진정 검사는 언제 하나요?

A 검사를 진행하는데 본인의 의지로 협조가 안될 때 진정제(경구/정맥)를 투여하여 진정 혹은 수면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고 통증을 감소시켜, 검사나 시술 시에 편안함과 안정적 검사를 하기 위해 진정을 합니다.

진정 검사의 대상으로는

- ① 검사에 협조가 어려운 7세 이하의 소아
- ② 뇌병변으로 인해 협조가 불가능하거나 낙상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
- ③ 패쇄 공포증이 있는 환자의 MRI 검사 시

Q CT나 X-ray의 방사선은 위험하지 않나요?

A 일반적인 방사선검사는 피폭 선량이 매우 적어서 신체적이나 유전적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암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지만, 흉부 X-ray 1매 촬영은 담배 1.5개피의 흡연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같은 정도로 다른 위험 요소에 비하여 방사선검사의 위험도는 매우 낮습니다.

방사선검사는 인체 위험보다는 진단적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는 암 발생을 우려하여 검사를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조영제 주사는 왜 맞나요?

A 조영제를 혈관으로 주입하면 조직 간의 구별과 혈관의 관계를 잘 볼 수 있어, 질병의 정확한 진단이 용이해집니다. 그러나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부작용은 화끈한 온열감, 메스꺼움, 구토, 가려움증, 눈 주위와 입술이 붓고, 재채기

혹은 호흡 곤란 등의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환자의 특이 체질로 인한 쇼크, 심부전, 심장마비 등의 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사시 의료진의 신속·정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Q 유방촬영 시에 유방을 세게 압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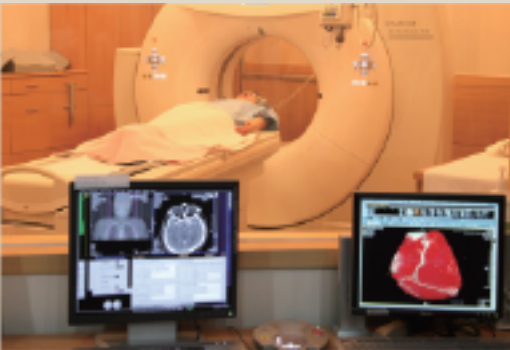
- A
- ① 동일한 두께로 조직을 펼치고 다른 유방조직과 겹침을 방지하여 정확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 ② 유방의 두께를 최대한 줄여 유방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③ 유방을 고정시켜 움직임에 의한 흔들림을 방지합니다.

Q 초음파로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나요?

A 초음파검사(Ultrasonography, US)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높은 주파수의 음파를 인체 표면에서 인체 내부로 보낸 후 내부에서 반사되는 음파를 다시 받아서 영상화시킨 것입니다.

초음파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상·하복부 초음파
- ② 비노생식기계 초음파
- ③ 유방 초음파
- ④ 갑상선 초음파
- ⑤ 근골격계 초음파
- ⑥ 혈관 초음파
- ⑦ 신생아의 뇌 초음파
- ⑧ 기타 초음파 유도하 시술 (갑상선, 유방, 간, 신장의 조직검사와 고주파열치료 등)



Q MRI 검사 시 금속 소지품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A MRI 검사장비는 자장이 형성되어 있는 커다란 통 형태의 자석입니다. 그래서 자석에 붙을 수 있는 금속은 검사에 방해가 되며 환자의 안전에도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머리카락 심장에 금속재료를 이용한 시술을 받은 분, 금속물질이나 파편 등이 몸에 있는 분은 반드시 진료과에서 검사가능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Q MRI와 CT검사의 의료보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MRI와 CT의 의료보험 기준은 환자의 질환에 따라 적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MRI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질환은 암, 뇌 양성종양 및 뇌혈관 질환, 간질, 뇌 염증성질환 및 치매 등 척수 손상 및 척수질환, 척추질환, 관절질환이며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CT는 악성종양, 외상, 뇌혈관질환, 간질, 경부, 흉부, 복부, 상지 및 하지, 척추질환 등 거의 모든 질환의 치료 및 검사에서 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들도 진료담당의사의 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부득이 촬영했을 때는 합당한 관련 자료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음에서 연습한대로 이루어진다

남을 돕는 것이야말로 내가 나 자신에게 베푸는 최고의 보시 행위다. 보시는 남을 돕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돕는다. 남을 도울 때 내 안에 ‘넉넉함, 풍요, 따뜻함, 행복, 사랑, 일체감’ 등의 실질적인 지혜와 자비의 파동이 일어나고, 그 파동은 곧 우주에 있는 동일한 파동을 유유상종으로 끌어당긴다. 그러면 머지않아 더 많은 풍요와 부, 행복과 기쁨들이 내 삶에 구체적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 우리의 마음은 무한 가능성의 파장이기 때문에 마음에 연습하는 대로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반면에 내 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주기 싫은 마음에는 ‘가난, 결핍, 부족, 분리감’ 등의 에너지가 파동치게 된다. 주기 싫은 마음을 연습하면 주지 못하는 현실, 즉 줄 것이 없는 가난한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내 안에서 연습되고 파동치는 마음, 즉 내가 실질적으로 매 순간 느끼는 마음이 계속 지속되도록 상황을 끌어당긴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마음의 인과응보이며, 유유상종의 법칙이다. 나와 우주는 둘이 아니기에, 내 안의 파동이 우주에 있는 같은 파동과 공명하며 그 공명파가 더욱 커지도록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다. 자식에게 공부 잘 하라고, 성적 좀 잘 받아오라고 하면 할수록, 나와 자식의 마음속에 ‘더 좋은 성적을 원하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진다. ‘더 좋은 성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성적을 원하는 상황’이 온다. 즉, 더 좋은 성적을 원하려면 계속 나쁜 성적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자식 성적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집착할수록 자녀의 성적은 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질병에 대한 마음가짐도 마찬가지다. 나에게 온 질병을 싫어하고 거부하면서, 빨리 나아야 한데 집착이 크면 클수록 빨리 낫는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낫기를 바라는 상황’이 온다. 빨리 낫기를 바라는 상황이 계속되려면 계속 아파야 하는 것이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온 거야’ 하며 짜증스러워하고, 싫어하고, 나에게 온 질병을 미워하면서 거부하면 할수록 그 질병은 계속 나에게서 지속되는 것이다.

‘빨리 낫기를 바라는 상황’은 현실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상황이기에 마음속에는 쾌유와 건강의 파동이 넘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미움과 거부의 마음이 파동치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에게 온 질병에 대해 이만하기를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아픈 곳도 있지만 아프지 않은 많은 부분에 대해 오히려 건강할 수 있어서 감사해 하고, 그 병의 세포 하나까지 받아들여 주고 사랑해 주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질병의 파동이 아닌 건강과 치유의 파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언제나 현재에 주어진 것이야말로 최선이기 때문에 온 것이다. 현실이 진실이다. 그러니 진리와 제합하려면, 현재에 나에게 온 것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바로 나에게 온 그 현실을 온전히 살아주는 것이다. 아플 때는 아픔을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은 아픈 시기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배워야 하는 때이니 그 아픔으로써 존재해 주는 것이다. 사실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병의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병에 대한 마음자세다.

이처럼 우리 마음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자의 마음에 무엇이 연습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보시를 했더라도 마음속에서 주기 싫은 마음으로 주었다면, 실제 마음속에 연습되는 것은, 아깝다는 마음, 주기 싫은 것 주어서 내 것이 사라졌다는 결핍된 마음들이다. 이러한 마음의 이치 때문에 불교에서는 찬탄하고 수희동참하는 공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남들이 보시를 했을 때 내가 한 것처럼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고 찬탄한다면 그 수희와 찬탄의 공덕은 내가 직접 보시한 것과 동일한 복덕이 된다고 한다.

사실은 물질적인 보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시를 행하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만들어 낸 상념은 사라지지 않고 어떤 방법이든 현실을 만들어 낸다. 마음이 움직이면 물질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을 보시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보시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렇기에 직접 물질로 보시를 하지 않더라도 보시하는 자를 찬탄하고 함께 기뻐하게 되면 그 마음에는 보시하는 자와 똑같이 보시의 공덕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매 순간 마음속에 무엇을 연습하고 있는가. 내가 채우는 것이 곧 내가 현실에서 체험하게 될 삶을 결정짓는다. 오늘 하루도 나는 마음에 무엇을 연습하고 있는지,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사유해 보라. 외부의 것들에 대한 신경을 잠시 꺼 두고,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내부로 들어가,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는 정 반대의 현실을 여실히 살펴보라.



법상(法相) 스님
불심도문 큰스님 은사로 출가,
'목탁소리(www.moktaksori.kr)' 지도법사,
BBS 불교방송 라디오
'법상스님의 목탁소리' 진행,
저서로 <눈부신 오늘>, <날마다 해피엔딩>,
<금강경과 마음공부>, <붓다수업> 등이 있다.

그림 속에 담긴 화가의 삶과 꿈

빈센트 반 고흐

2

비록 짧은 생애였지만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아름다운 그림으로 사랑받고 있는
위대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런 그가 인정하고 열렬히
추앙 했던 화가는 누구일까?
폭발적인 에너지를 담은
그의 그림 속에서
이들의 이야기가 있다.



이지윤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조형예술학 석사.
2004~2016년 현재 고양문화재단 아람미술관 큐레이터.
저서로 〈교과서 속 현대미술 이야기〉 등이 있다.



빈센트 반 고흐, 〈해바라기〉, 95X73cm, 캔버스에 유채, 1889, 반 고흐 미술관, 암스테르담

누군가를 일편단심으로 기다린다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우리는 종종 ‘해바라기’를 비유적으로 사용한다. 반 고흐가 일부러 그런 뜻을 담아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해바라기〉는 아를에서 스승이자 친구였던 고갱을 기다리면서 그려진 것이다. 1887년 11월, 반 고흐는 파리에 막 도착한 폴 고갱과 친구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고갱을 비롯해 툴루즈 로트렉, 폴 시냐, 쇠라 같은 작가들과 교류했던 파리 생활에 지친 나머지 남프랑스 아를로 떠났다. 그리고 고갱에게 함께 와서 머물기를 여러 번 요청하고 기다린다. 해바라기 꽃을 좋아했던 그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강렬한 노란 색조로 뒤덮인 그림은 그 기다림의 열망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의 희망대로 고갱은 아를에서 그들의 우정을 위해 같이 지내기로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술에 관한 격렬한 논쟁과 함께 그들의 관계는 파국을 맞이했다. 고갱은 아를을 떠났다. 정열적인 빈센트는 그와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 고갱을 존경했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지만 지나치게 과감한 빈센트의 기질은 결국 고갱과 맞지 않았다.

“다행히도 나는 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또 너무 급하게 그림을 그린다는 비난에 무관심하다. 요즈음 나는 이 비난에 대한 도전으로 훨씬 더 빠르게 그림 그리고 있다…최근의 습작 두 점은 꽤 재미있는 것인데, 30호 짜리이다. 그 중 하나는 나무와 짚으로 만든 셋노란 의자가 빨간 마루 바닥 위의 벽에 기대어 있는 낮 동안의 정경을 그린 것인데, 밤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벽과 마루바닥도 모두 붉은 색과 녹색으로 되어 있으며, 그 의자 위에 소설택 두 권과 양초 하나가 놓여 있다. 이 두 점의 그림들은 모두 반 투명한 얇은 천의 캔버스에 두텁게 채색을 했다.”



빈센트 반 고흐, 〈반 고흐의 의자〉, 93x73.5cm, 캔버스에 유채, 1888, 런던 내셔널 갤러리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갱의 의자〉, 90.5x72cm, 캔버스에 유채, 1888, 반 고흐 미술관, 암스테르담

사실, 빈센트는 너무나 겸손한 나머지 고갱에게 자신의 모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그의 의자를 그렸을 뿐이다. 투박한 캔버스 위에 그려진 빈센트의 기념비적인 이 두 개의 정물화는 빈센트와 고갱의 성격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다. 〈아를의 반 고흐의 의자〉 그림의 배경을 살펴보면 빈센트의 서명이 새겨진 양파 상자가 있다. 노란 빛을 띠는 팔걸이 없는 라탄 의자와 파이프 그리고 양파 상자에서 풍기는 소박한 삶의 모습이 바로 빈센트의 것이다. 반면, 〈폴 고갱의 의자〉는 팔걸이가 있고 폭신포 보이는 의자 위에 교양을 나타내는 책 두 권을 놓아 반 고흐가 생각하는 고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의자 위에 놓여 사망을 비추는 촛불은 고갱의 깨어있는 의식을 표현한다.



빈센트 반 고흐, 〈반 고흐의 아들의 침실〉, 57.5x74cm, 캔버스에 유채, 1889, 오르세 미술관, 파리

아를에 정착해 고갱과 함께 새로운 화가들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꿈이 담긴 〈반 고흐의 아들의 침실〉에서 격렬한 색조의 대비와 충동을 보여주는 반 고흐만의 개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침실을 주제로 한 같은 그림을 3점 그렸고, 조금씩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고흐의 방’은 소용돌이 치는 그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연한 라일락 색상의 벽과 바랜 붉은 색 바닥, 노란색 의자와 침대, 짙은 빨강색 담요, 오렌지 색의 세면 탁자, 푸른색 수반 그리고 녹색 빛 창문. 나는 이렇게 다른 색들의 절대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표현하고자 했다.”

가장 마지막에 그려진 〈반 고흐 아들의 침실〉 세 번째 그림에는 벽에 걸린 두 점의 초상화가 있는데, 이 둘은 그를 지지했던 벨기에 화가 외젠느 보쉬와 그의 누이 안나 보쉬이다. 자신의 예술 세계를 나누고 인정해 줄 누군가를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에게 고갱과의 결별은 상당한 좌절이었다. 이후 그의 정신적인 병은 더욱 심각해져 갔고, 우울증과 함께 권총을 자신의 가슴에 겨냥하게 만들었다. 그를 마지막까지 후원했던 동생 테오에게 ‘고통은 영원하다’라는 절망적인 마지막 한 마디를 남기며 떠났다.

사찰기행

무소유의 의미가 빛나는 길상사

햇살 가득한 그런 날이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 아쉬울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몸과 마음에 시원한 바람을 쐬러 가까운 서울 여행을 한다. 서울 성곽과 북악산을 외투처럼 두르고 있기에 맑은 기운을 가득 머금은 장소.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저 마음 따뜻해지는 성북동으로 가보기로 했다.



박태식
사단법인 한국여행작가협회 소속
2014 시티은행 사보 여행기사 기고
2014~2015 동국대학병원 사보 여행기사 연재
1인 매체 Korea+trip.com 운영



조선 왕조의 정신을 기리는 종묘,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법궁이었던 창덕궁의 정북 방면에 있어서 한양 도성의 북쪽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성북동. 이 지역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싶겠지만, 생각보다 방문할만한 곳들이 다양하게 있다.

만해 한용운이 조선총독부와 마주 보기 싫어서 북향으로 지었다고 전해지는 심우장과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하고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라는 명저를 써내려간 故 최순우 선생의 옛집을 비롯한 자아와 백석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깃들어있는 길상사가 대표적이다.

술을 파는 요정이 사찰로 바뀌다

삼각산 아래 성북동 주택가 사이에 있는 사찰 길상사. 일주문이 아니면 담장 뒤편에 사찰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칠 정도로 조용하다 못해 은밀하기까지 하다. 그 이유는 이 장소가 예전에는 술을 파는 고급 요정이었기 때문이다. 길상사의 예전 이름은 대원각. 걸어서 십여 분 거리에 있는 삼청각과 청운동에 있는 청운각과 함께 국내 3대 요정으로 손꼽혔다. 제3공화국에 밀실 정치의 중심지였던 대원각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길상화 김영한. 그녀는 나이를 먹고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다. 바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은 그녀는 직접 스님을 만나 뵈게 되었고 당시 시가 1,000억 원이 넘는 대원각을 시주하여 사찰로 만들어주시길 청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10년에 걸쳐서 거둬 사양하였으나 결국 그 뜻을 받아드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사찰의 분위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다고 한다. 모든 건물의 구석구석 배어든 고기와 술 냄새는 쉽사리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 부단한 노력의 힘으로 지금의 길상사가 개원되었다.

자아와 백석의 슬픈 사랑 이야기

길상화 김영한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은 '자아(子夜)'. 이름을 지어준 것은 시인 백석이었다. 자아라는 아호는 이백이 지은 '자야오가'에서 따 온 것이다. 이 이름을 지어준 이후에 둘은 같이 서울로 올라왔고 백석은 자아의 집에 머물면서 자아와의 사랑을 표현한 시를 쓰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백석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이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이뤄지기에는 넘어야 하는 산이 험준했다. 바로 백석 시인 집안의 반대. 미천한 기생이라며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부모님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백석은 자아에게 만주로 함께 떠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자아는 자신이 백석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 그를 따라나서지 못했다. 운명의 장난인지 몇 년 후에 벌어진 한국전쟁으로 그들은 영영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자아는 죽는 그 날까지 시인 백석을 그리워하며 그를 기다렸지만 결국 만날 수 없었다. 백석은 1995년에 자아는 1999년에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맑고 향기롭게

길상사를 돌아보면 '맑고 향기롭게'라는 말을 자주 볼 수 있다.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이 이름의 단체는 법정 스님이 살벌하고도 삭막하지만 한 이 세상에 푸근하고 향기로운 마음의 연꽃을 피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설립된 단체로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이다.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회원들의 순수 모임이다. 이곳에서는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길상화 장학 사업과 반찬 나눔 사업 등이 있다. 법정 스님이 꿈꾸시던 맑고 향기로운 삶의 방식이 세상 널리 어우러지기를 희망한다.

주변 여행지

심우장

만해 한용운이 일제강점기 당시에 지었던 집으로 일반적인 한옥이 가지는 남향이 아닌 북향집인 것이 독특하다. 이는 남쪽 방향에 있던 조선총독부와 마주 보게 된다는 이유로 뒤로 돌아보게 지어졌기 때문이다. 한용운 선생의 독립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순우 옛집

2004년 설립된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 기금을 통해 만들어진 시민문화유산 1호가 최순우 옛집이다. 이 기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기부 등을 통해서 마련되었다. 해곡 최순우 선생은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옛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 바가 있으며 이번 2016년은 선생의 탄생 100주년이다.

수연산방

산허 이태준이 살면서 여러 문학작품을 집필한 곳이다. 수연산방이라는 이름은 이태준이 지은 것으로 현재는 분위기 좋은 전통 찻집으로 영업 중이다. 분위기가 좋은 고객에 앉아서 여유롭고 기품 있게 마시는 차 한 잔의 맛이 훌륭하다.

DUMC NEWS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심장 관상동맥우회술 · 유방암 ·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와 유방암, 대장암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최고 점수인 100점 만점을 맞았고,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하여 수술과 암 치료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관상동맥우회술에서는 수술 후 30일 이내 또는 입원기간 내에 사망한 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병 평균 사망률인 4.6%와 5.1%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다.

고양시 도서관센터와 업무협약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3월 31일 고양시 도서관센터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보자료의 공동 이용과 문화 프로그램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을 꿈꾸는 청소년에게 진로 및 직업 관련 멘토 역할을 하고, 도서관을 찾는 지역 주민에게는 건강강좌 등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고양시 도서관에서는 음악회, 인형극 공연과 찾아가는 그림책 읽어주기 등을 운영하여 환우들의 마음치유를 담당하고, 도서관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상황별 도서 목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일산동구보건소와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협약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4월 5일 일산동구 보건소와 ‘우리 동네한방주치의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산동구 8개 동 중 중산동, 풍산동, 식사동 3개 동의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방 침 시술, 건강 상담, 한방진료, 건강교육 등을 제공한다. 또한 동구보건소에서는 진료 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제2의 청춘을 맞이하시길 바라는 취지로 ‘청춘차’라는 한방차를 자체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며, 일산동구보건소와는 매달 한 번씩 나눔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바일 전용 웹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버전 오픈

의료정보팀은 지난 2010년 개발한 스마트폰 진료예약 앱의 불편사항을 보완한 모바일 전용 웹 홈페이지 개발을 완료했다. 이번에 개발한 모바일 전용 웹 홈페이지는 그동안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던 모바일 접근성과 진료예약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진료예약 △수진 이력조회 △진료과, 의료진 안내 △전화번호 안내 △오시는 길 △병원 소개 등을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 논문 ‘Tissue Engineering’지 표지로 채택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의 논문이 미국에서 간행되는 조직공학의 우수 저널 ‘Tissue Engineering’(IF:4.2) 2016년 4월호에 표지로 채택됐다.

표지에 실린 그림은 세포 이식 없이 골수에 존재하는 내재 줄기세포를 연골골손 부위로 이동시켜 결손을 치유하는 개념의 모식도로써 논문의 우수성이 입증되어 이번호에 실리게 되었다.

임균일 교수는 현재 세계조직공학 재생의학회의 평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축적된 재생의학기술을 바탕으로 손상된 인체조직 및 장기복구연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침구과 김갑성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침구과 김갑성 교수는 2월 25일 밀레니엄호텔에서 진행된 제30차 대한한방병원 정기총회 개회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김 교수는 시상식 후 인사말에서 “2016년은 수련생활을 끝내고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교수직을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대한한방병원 정기총회에서 표창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며, 이상은 후진 양성과 진료 연구에 더욱 매진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병원 활동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비를 나누는 해외 의료사업

동국대학교의료원은 나눔의료 해외 확대를 위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미얀마 만달레이

에 있는 시립병원과 주요 사찰 등을 방문하여 긴급 의료지원과 함께 수술이 필요한 수혜자를 선발하기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미얀마의 낙후된 의료환경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픈 사연이 본원에 접수되면서 나눔 의료의 아름다운 뜻이 전 세계로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성사되었다. 해외 나눔 의료사업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원의 자비 나눔 기금 및 승가의료기금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앞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가 있는 곳이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뇌혈관질환 영상진단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 및 산학협력 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주)제이엘케이인스펙션과 3월 28일 뇌질환 영상진단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향후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이번 계약을 통해 기존의 의학 관련 기술 자료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환자 맞춤형 진료 시스템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고, 뇌 관련 분야 글로벌 의료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 선두주자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발에 참여하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김동익 교수팀은 한국인의 뇌혈혈 표준 뇌도판을 완성하여 2015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DUMC NEWS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장암 4차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발성 대장암으로 수술받은 만 18세 이상 환자를 수술한 전국 26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 구성여부 △수술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 시행률 △수술 후 8주 이내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국소 임파절 절제 및 검사율 △수술 사망률 등 총 21개 항목으로 실시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정성 평가분야에서 1등급을 받는 등 지역사회 중증질환 치료의 중심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교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선포식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서는 매년 새해 목표로 금연을 희망하지만 담배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또다시 흡연하는 교직원들에게 금연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금연 및 건강도우미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직도 당신은 흡연자이십니까? 당신의 폐가 타고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금연 교육 및 치료, 보조제 처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금연에 성공한 교직원들에게 20만원+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및 처방약을 무상(3주차 이후)으로 제공하는 등 금연을 독려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16년 교직원 건강증진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금연선포식이 4월 6일 힐링센터 힐링홀에서 개최되었으며, 금연 6개월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동석 병원장은 “금연 교육 및 보조제로 이번 기회를 통해 꼭 금연 성공과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및 간담회

경주시 보건소와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경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4월 12일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점득 경주시보건소장을 비롯해 박재홍 경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이동석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협약기관은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치료를 받으면 최고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무상지원하고, 지정신건강증진센터와 경주병원 및 보건소 간 환자 정보를 공유해 우울증 상담 및 병원 치료 연계 등 자살예방 사후관리까지 지원하게 된다.



심장질환자에 ‘녹는 스텐트’ 시술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심장혈관내과에서는 3월 8일 환동해권 최초로 심장질환자에 생체 흡수형 스텐트 시술을 시작했다.

기존의 혈관스텐트(막히거나 좁아진 혈관에 그물망 같은 가는 관을 넣어 혈관을 넓히는 치료 재료)는 혈관에 한번 장착되면 다시 뺄 수가 없어 재발하면 재수술이나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혈관 내에 남아있는 철망 때문에 평생 혈전용해 약물을 복용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협착의 우려가 문제가 됐다. 이러한 스텐트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된 녹는 스텐트인 생체 흡수형 스텐트는 2011년 유럽에서 CE인증을 받은 후 세계적으로 12만 5000명 이상의 심장병 환자들이 시술을 받아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보험급여를 인정받아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생체 흡수형 스텐트 시술은 재수술의 위험과 혈관 기능의 자연스러운 회복에 도움이 되며, 심장질환자의 장기 합병증과 약물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어 지역 의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심장혈관내과 나득영 교수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심장혈관내과 나득영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미국 마르퀴즈 후즈 후사에서 발행하는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월드의 2016년판에 등재되었다. 나 교수는 심혈관중재시술 인증으로 체계적인 연구와 활발한 논문 발표 등 그간의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등재되었다.

DUMC NEWS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제6회 환우를 위한 여우별 음악회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3월 19일 입원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여우별 음악회’를 개최했다. 봄을 알리는 이번 무대는 경기도 음악 영재 초·중학생 및 계원예술고 학생들이 동서양의 다양한 악기 연주로 따뜻하게 선보였다. 음악을 감상한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이렇게 다양한 연주를 듣게 돼 치료로 지친 몸과 마음 이 한결 편안해 졌다.”며 감사의 소감을 전했다.



교직원 불곡산 등산대회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3월 26일 전교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 및 건강증진을 위한 ‘2016년 교직원 불곡산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등산대회는 수내동 근린공원에서 출발하여 형제봉(만남의 숲)-정상(만남의 광장)-조류관찰숲을 지나는 왕복 등산코스로 진행되었다. 김근우 병원장은 “등산대회에 참가한 교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교직원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고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560년 부처님오신날

성남시청 사암연합회 봉축법회

4월 7일 성남시청 및 성남불교사암총연합회에서 주최한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에 교직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진행된 봉축법회와 시청 앞 광장의 봉축 점등식에 참여하여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중생제도를 기원하는 탑돌이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부처님 오신날 맞이 ‘연꽃 만들기’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에서는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불광사 보살님 30여 명과 함께 4월 22일 ‘연꽃 만들기’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은 “연꽃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일한일 정성스레 만들면서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와 부처님의 진리를 느낄 수 있었고, 환자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만들었다.”며 부처님게서 오신 참뜻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만든 연꽃은 환자 쾌유의 발원을 담아 입원환자 및 내원객들에게 전달했다.



DUMC NEWS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의학교육 교수개발

경주·일산 합동워크숍 개최

동국대학교의과대학은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대강당에서 의학교육 교수개발 경주·일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황지영 교수의 ‘대학평가 인증과 본교 교육과정 현황’, 이해원 교육부학장의 ‘Post 2주기 인증평가를 위한 현지방문 평가 결과’, ‘교과목 책임교수의 역할과 교수 업적평가 규정개선’, 김경지 교수의 ‘다양한 교수학습법과 평가’에 대한 발표로 이루어졌으며, 주제발표를 마친 후에는 6개조로 나누어 의과대학 교육 현안에 대한 조별토의를 진행했다.

한의과대학 제5기 입학 33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열려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은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제5기 입학 33주년 기념 홈커밍데이를 경주캠퍼스 및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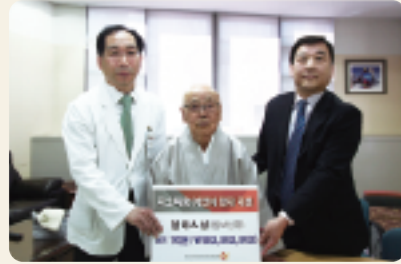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는 30여 명의 5기 동문이 참석하여 캠퍼스 추억을 회상하며 동기간의 우의를 나누었으며, 동기회와 모교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의과대학 박용기 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동국한의를 통해 오늘날 사회의 유명인사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제 동국한의를 위해 단합하여 힘을 모아 가자”라고 말했다.

나눔의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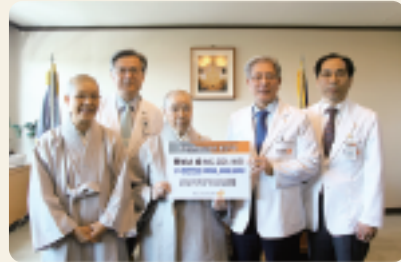
일하 스님, 저소득층 어린이 환우를 위해 1억 원 쾌척

철보선원 일하 스님은 4월 4일 치료 차 방문한 자리에서 어려운 어린이를 위해 써 달라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1억 원을 쾌척했다. 이번 기부는 스님이 지난 10년 동안 좋은 일에 쓰기 위해 매월 조금씩 모은 돈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와 소아암 환자의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본원에 기부했다. 일하 스님은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금액에는 불교신도들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담겨 있다.”며, “작은 돈이지만 크게 써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발전기금 8천만 원 쾌척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 도량인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4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불교의학연구소에 각각 사천만 원씩, 발전 기금으로 팔천만 원을 전달했다. 명성 스님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불교종립병원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를 잡아 의료 포교의 중심도량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했고, 불교의학연구소가 전법활동에 치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동국대학교법무대학원 자산경영법무최고위과정 총 동문회 ‘사회사업후원금 300만원 기부’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자산경영 법무 최고위과정 총동문회는 2월 23일 본원에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에 써달라며 300만 원을 기부했다. 총 동문회는 2012년부터 불우환자들을 위한 자비와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최고위과정 총동문회 후원 취지에 따라 본원은 지금까지 총 3명의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했다.



스님! 이제 종단에서
입원진료비와 요양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 받으세요.

지원
대상

구족계 수지와 결계를 필하고 종단등록 사찰에 거주하는 모든 스님.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 제외

지원
종류

입원진료비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그 입원진료비 지원. 서울 및 수도권(인천·경기)은 동국대 산하병원 또는 종단·교구와 협약한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만 지원. 그 외 지역은 모든 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요양등급을 받고 종단 협약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식사재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원칙적으로는 교구와 사찰에서 부담. 다만 학업 또는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별 부담하는 스님 중 지원신청을 한 경우 월20,000원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보험료 2017년 1월부터 1인당 월36,000원을 기준으로 단계적 지원

승보공양 후원 동참 안내

승보공양 후원금은 위와 같이 스님들 의료비 등에 지원합니다.
승단을 외호하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불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후원참여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불자님들의 승보공양 동참으로
우리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앞당겨집니다.

승보공양동참

ARS 후원(전화 060-700-1077), 1일 1회 1통화 3,000원)

CMS 계좌이체 후원

농협 301-0080-9225-91, 국민은행 023501-04-176129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승려복지회)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



제도안내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안내 ▶ 문의 (02)2011-1726 · 27(조계종 승려복지회)

팩스 733-3603 | 주소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55 조계종 승려복지회 |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염원하는 큰 뜻!
자비 나눔으로 동참해주십시오.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뜻에 보답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약사어래부처님의 12대원을 실천하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전기금 사용처

- 의료, 교육 환경 개선
- 의료장비, 임상실험 기자재구입 등
- 학술연구, 장학기금
- 불우환자 지원
- 기타 병원 및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발전

발전기금 안내

- 동국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현금, 주식, 기타자산이나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기부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우선 약정하시고 추후 납입하셔도 됩니다.

기부자 예우

구 분		의료비 감면					
		건강검진 (년 1회)	진료비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주치의	한방보약	영안실	비 고
회원예우	누적기부총액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본인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진료비 무료 연간 적용기간)
다이아몬드	50억	무료(무료)	무료(50%)	배정	무료(50%)	무료(무료)	연간 180일 이내(입원)
에메랄드	10억	무료(무료)	무료(50%)	배정	50%(50%)	무료(무료)	연간 90일 이내(입원)
사파이어	5억	무료(무료)	무료(20%)	배정	50%(30%)	50%(50%)	연간 90일 이내(입원)
루비	1억	50%(50%)	20%(20%)		20%(20%)	30%(30%)	
도세/자애	5천만원	30%(20%)	20%		20%(20%)	20%(20%)	
신실/섭심	1천만원	20%(20%)	15%		20%(20%)		
1백만원			10%				

1. 상기 내용 중 배우자는 기부자 생존시까지로 한정됩니다.
2. 영안실은 시설사용료에 한하며, 상기 내용 중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진료비와 한방보약의 감면은 별도로 적용되며, 한방보약은 직접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후원 문의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 TEL 031. 961. 5713 FAX 031. 961. 5719 e-mail dumcco@dumc.or.kr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CS경영팀

▶ TEL 031. 961. 9362 FAX 031. 961. 9369 e-mail kingdom@dumc.or.kr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기획예산팀

▶ TEL 054. 770. 8126 FAX 054. 770. 8500 e-mail dumccs@dumc.or.kr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원무팀

▶ TEL 031. 710. 3718 FAX 031. 710. 3780 e-mail dumcbh@dumc.or.kr

동국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내역

동국대학교의료원에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 2. 1 ~ 2016. 4. 30

대원스님	₩ 100,000,000	(사)생명나눔실천본부	₩ 6,826,220	경주시보건소	₩ 1,421,250
증취스님	₩ 30,300,000	경주지역금속사용자협의회	₩ 5,000,000	기형스님	₩ 1,200,000
김응중	₩ 10,000,000	정목스님	₩ 5,000,000	무구스님	₩ 1,200,000
묘진스님	₩ 10,000,000	동국대자산경영법무최고위과정총동문회	₩ 3,000,000	도경원	₩ 1,000,000
운수스님	₩ 10,000,000	한국심장재단	₩ 2,586,850	법성스님	₩ 1,000,000
종상스님	₩ 10,000,000	이명규	₩ 1,500,000	최진원(선아트)	₩ 1,000,000
아름다운재단	₩ 7,247,970	홍련암	₩ 1,500,000	현대카드	₩ 1,000,000

강귀옥	권효숙	김민철	김영수	김지예	남현미	박성원	박현숙	서희주	심미나	유은정	이문정	이옥진	이주는	임철호	정미라	조계종	채기수	최지운	한윤용
강보라	권희재	김민호	김영자	김지우	남희련	박성주	박혜진	설향미	안숙자	유인협	이미영	이용찬	이주형	임춘화	정석화	사회복	채봉희	최진영	한윤희
강석진	금정림	김방희	김영진	김차기	노미경	박세진	박효진	성낙진	안연순	유정임	이미희	이원상	이준규	임현민	정숙희	지재단	채석래	최창익	한은숙
강연주	김강림	김복란	김영혜	김치선	노주원	박수연	방선호	소선기	안영길	유정희	이민우	이원용	이준길	자비나눔	정순탁	조동삼	청명스님	최한기	한은숙
강지영	김경아	김상규	김용배	김태규	대영스님	박숙희	배경인	소선기	안종희	유주형	이병기	이원호	이지영	A R S	정승은	조민주	최문전	최해용	한정훈
경보호	김경옥	김선경	김용석	김태숙	류대안	박순자	배상만	손귀득	양경수	윤명희	이병성	이유나	이지원	자비나	정승현	조성민	최문희	최혜숙	허 봉
고유삼	김경진	김선희	김용숙	김태영	모종은	박시우	배서영	손민정	양경순	윤복연	이선아	이은주	이지은	눔세상	정영희	조승호	최상돈	최희정	허순례
공성화	김경희	김성겸	김율리	김태은	문주연	박영근	배주현	손정은	엄희경	윤상호	이선인	이은하	이진호	장매희	정원기	조영순	최서영	추경희	현경석
곽월희	김국현	김성권	김은미	김필자	민상연	박유경	백용해	손정화	여민영	윤수임	이선희	이자경	이태영	장순자	정윤정	조윤정	최영진	팽경미	현미숙
구병수	김남희	김성원	김은애	김하겸	박경자	박재경	백우진	손주연	여민혁	윤정미	이소영	이재우	이향년	장연화	정은경	조은영	최예지	하민영	홍민재
구순점	김덕례	김세민	김은영	김한성	박기철	박재희	백윤정	손주영	염윤정	윤정호	이수경	이재환	이항미	장유민	정이선	조혜영	최유안	하연주	홍보람
권경순	김덕희	김세희	김은정	김해정	박동우	박정숙	백인석	손효정	염주홍	윤형근	이수현	이재희	이현희	장충섭	정인영	조혜원	최윤희	하정희	홍승욱
권도윤	김도현	김소원	김은희	김현서	박동진	박정화	백인호	송해정	오민구	이강현	이순애	이정백	이현경	장태영	정인원	조혜정	최윤희	하현지	홍은기
권두경	김문식	김솔아	김재학	김현정	박명조	박재진	서미경	송기의료	오성은	이경미	이순희	이정우	인승순	장혜연	정재우	조희남	최은진	한국실명	홍은수
권삼숙	김미경	김순만	김정미	김형관	박미형	박준재	서상연	A R S	오진숙	이경애	이승철	이정하	임선희	장호근	정재현	주은명	최인주	예방재단	홍은희
권성옥	김미숙	김순애	김정민	김혜미	박보경	박지홍	서영문	신경민	오채원	이귀숙	이승호	이정훈	임시현	정경윤	정지유	지영한	최정민	한미숙	홍종숙
권수민	김미영	김시연	김정숙	김혜진	박상은	박진우	서영진	신경수	유갑순	이규홍	이애영	이정희	임예은	정경철	정호근	진경애	최정숙	한미정	황보수진
권일진	김미영	김영미	김정숙	김희진	박서연	박진우	서재일	신성준	유묘상	이나현	이영숙	이종대	임윤정	정다영	정희정	진영조	최종기	한송이	황윤자
권태용	김민선	김영복	김주현	남유화	박성미	박현미	서 준	신은희	유영석	이말보	이영실	이종득	임종대	정만스님	조경애	차옥련	최준용	한영희	황정희

세속 나이로 이제 60세를 넘긴 한 선방 스님은 두통과 늑골부위 통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병원에 가볼 엄두를 못 내었습니다. 평생을 선객으로 살아오신 분이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할 도리를 없는 거지요. 속가의 가족과 인연을 끊어진지 오래였고, 처지가 비슷한 도반스님들 또한 도와줄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그러나 동국대학교의료원의 승가의료비 지원프로그램과 연결되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스님은 뇌MRI, CT,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뜻밖에 폐암 초기 진단을 받아 응급수술을 한 뒤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대표자 :)	☐ 익명요청 (모든 홍보물에 익명으로 표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본 의원과의 관계 (※ 중복 체크 가능)	☐ 일반 ☐ 동문 (입학년도 :)	☐ 불교계	☐ 교직원 대학(원) :	☐ 기업/단체 전공 :	☐ 기타 ()
직장명	부서		직위		
우편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			☐ 자택 ☐ 직장		
휴대폰번호	유선전화				
이메일	기부 추천인				

약정

약정액	현금	원 (₩)	☐ 현물기부(원)상당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월()원씩 / 총()회
기부금 용도	☐ 의원원발전기금위원회 일임 ☐ 병원발전기금 (☐ 일산병원 ☐ 경주병원 ☐ 분당한방병원) ☐ 학교발전기금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 지정기금 (지정)						

기부의견

납부방법

본인 자동이체 신청	월정기납 : 매월 ()일 예금주 : 이체은행 : 본인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방법 (☐ 일시납 ☐ 분납) 입금자명 :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8037-00-000011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2-076965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68137-01-001162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급여공제	사번 : (※ 재직 교직원에 한함)

정보 동의 ☐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인 : 서명(인)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귀하

- 동국대학교 의료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정서 송부 : 주소 ▶ 10326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 이메일 ▶ dumcco@dumc.or.kr / 팩스 ▶ 031•961•5719
- 문의 :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031•961•5713

보내는 분

주소

연락처



받는 사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10326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6 Summer | VOL. 7

“고려의 의료 공헌을 이어 ‘동국’은 의료공공기관으로서

민간의료 공헌을 통해
의료 공헌을 통해



이곳에 풀칠하세요.

절취선



Life Care Partner

동국대학교병원 건강검진 프로그램

건강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진료과 전문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지향
- 동서양 의학 접목을 통해 각 개인별로 차별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적용
- One stop system 건강진단 실시로 당일 건강진단 후 신속한 당일결과 상담(판정) 가능
- 고객이 선택 가능한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 건강검진 후 위험인자나 질병 발견 시 지속적인 사후관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건강증진센터 건강검진 프로그램

기본검진	기본종합검진은 비교적 건강한 일반 성인에게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특별한 건강상 문제없이 건강관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정밀검진	기본형에 추가로 소화기질환, 심혈관질환, 폐질환, 그리고 남성 및 여성 질환, 성인병 예방 및 발병률이 높은 각종 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위한 고급형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프리미엄 숙박검진	다양하고 정밀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짧은 시간에 검사하기 어려운 노약자, 지방거주자 및 편안하고 여유롭게 검사하고자 하는 수검자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생애주기별	예비신랑·신부검진, 청소년검진, 장수검진 등 생애 주기별 질환을 체크할 수 있는 맞춤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및 예약	031. 961. 7698~9, 7702 인터넷예약 ▶ http://www.dumc.or.kr/hpc/ 예약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4시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 건강검진 프로그램

기본 종합검진	기본종합검진은 비교적 건강한 일반 성인에게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특별한 건강상 문제없이 건강관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종합검진	기본형에 추가로 소화기질환, 심혈관질환, 폐질환, 그리고 남성 및 여성 질환, 성인병 예방 및 발병률이 높은 각종 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위한 고급형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플래티늄 종합검진	프리미엄 종합검진에 뇌혈관질환까지 확인할 수 있는 VIP를 위한 가장 최고급 종합검진입니다. 주요 암질환과 각종 위험인자를 광범위하게 정밀진단하는 최상의 프로그램입니다
특 화 종합검진	가족력, 이력 등에 따른 특화된 검진으로 개개인 질환을 체크할 수 있는 맞춤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및 예약	054. 770. 1430~3 인터넷예약 ▶ http://www.dumc.or.kr/gj 예약시간 ▶ 평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문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031-961-7955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경주한의원 054-770-1400~1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031-710-3712/3781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의료원은 고객과 자비 중심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6 Summer | VOL. 7

발행인 태석기

발행처 동국대학교의료원

발행일 2016년 6월 1일 (통권 7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대표전화 1577 · 7000

홈페이지 www.dumc.or.kr

기획·편집·디자인 동국대학교의료원 편집위원회

일러스트레이션 필몽

인쇄 (주)신화프린팅 031 · 905 · 2727